

파도

안소정

옛날엔 여기가 전부 붉었더란다
할아버지 말씀에 고개 돌려 바다를 바라본다
파도가 푸르게 넘실거렸다
잘 정돈된 해안은 썩아 썩 철썩대고,
우리의 침묵을 삼키면
밥 넘기는 목울림이 크게 들렸다

썩아, 썩 사람들을 향해 썩아
고함을 지르면 총알이 빗발쳤다

ㅅ
ㅊ
ㅇ

인영들은 세로로, 가로로 뒤엎겨 모래를 이뤘으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이 바다에 스러져 해안선을 이뤘으리
할머니의 아버지, 동생, 친구는 이 바다에 흐드러져 포말을 이뤘으리
아, 파도가 울렁인다

세상 몰라줄 붉은 서러움은 바닷물이 훗날 데려갔기를 소망하며,
살려 달라던 외마디 고함도 바다가 데려갔을까
그들 몸에 자욱하던 핏물도 바다가 씻겼을까
남은 가족 품 못 달고 남겨진 육신도 바다가 안았을까
달래 줬을까
울진 않았을까
아, 파도가 넘실거린다

목구멍에서 아우성이 술렁거린다
바다는 숨이랬다,
그리운 이들의 마지막을 담은 파랑이 되어 하늘까지 닿는.
할아버지는 가시는 날까지 숨을 쉬셨다,
그리운 이들의 마지막을 담아 우리에게 닿는.
할머니는 가시는 날까지 숨을 쉬셨다,
그리운 이들을 잊지 않은 파랑이 되어 우리에게 닿는.

그러니 이젠 내 숨을 담아 하늘로 닿는 아우성을 보낸다
파도는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